

‘벤투 후임’ 새 사령탑 첫 상대는 콜롬비아

내달 24일 한국 축구대표팀 A매치 친선경기 첫 상대 결정
경기 장소 등 ‘미정’... 28일 두번째 상대도 남미와 협상 중

3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A매치 첫 상대가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24일 콜롬비아 대표팀과 A매치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추후 확정된다.

콜롬비아전은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을 이끈 뒤 결별한 파울루 벤투 감독 후임인 새 감독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3월 A매치 이전에 새 감독 선임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3월 A매치 두 번째

상대(28일)도 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매치 기간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륙선수권 예선 일정이 잡혀 있고, 북중미도 대부분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치러 남미 국가들과 A매치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 두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울림피아코스), 이강인(마요르카), 김민재(나폴리) 등 해외파들도 소집된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FIFA 랭킹에서 17위에 올라 있다. 한

국(25위)보다 8계단 높다.

지난 카타르월드컵 남미 예선에선 6위에 그쳐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역대 전적에선 7차례 만나 한국이 4승2무패로 앞서 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19년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선 한국이 손흥민, 이재성(마인츠)의 골로 2-1 승리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네스토 로렌조 감독이 지휘하는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울림피아코스), 다빈손 산체스(토트넘), 루이스 디아즈(리버풀), 후안 파드라도(유벤투스)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다. /뉴시스

도내 수구선수들, AG 국대 선발

한예빈·박예은·문다윤 등
희망찬코리아 소속 3명

2023년 수구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전북지역 수구선수 3명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수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선발된 국가대표들은 전주완전수영장에서 훈련한 것으로 확인돼 전주 시민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예빈, 박예은, 문다윤 등 3명은 앞으로 한국 수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열띤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됐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희망찬코리아 소속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완전수영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해오며 ‘국가대표 선발’ 영광을 안았다.

여기에 전주교육지원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자 수구의 경우 국내 실업



희망찬코리아 소속 한예빈(왼쪽 첫번째), 박예은(앞줄 왼쪽 두번째), 문다윤(뒷줄 가운데) 선수. (사진=전주시시설공단 제공)

팀이 없어 선수층이 적고, 체육회의 지원 또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는 게 정은철 대표의 전언이다.

정은철 대표는 “이번 대회에 총 10명의 소속 선수들을 출전시켜 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고, 이들 중 3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좋은

성적으로 비인기 종목인 여자 수구의 ‘우생수(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의 각 종목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스포츠 명품도시 만들 것” | 올해 46개 체육대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올해 첫 겨울철 체육대회로 유치한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춘향골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아쉽게 준비한 46개 연중 체육대회도 드디어 광파대를 올렸다.

시에서는 연중 체육대회 개최로 거대한 체육시설 콤플렉스를 상시 가동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장기목표를 향해 그간 불모지인 동절기 대회유치를 준비해 왔다.

체육의 비수기라는 1월에는 전지훈련기간 스포브리그전(시즌오프 시기 비공식 리그전)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었다.

특히, 올해는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6개, 시장대회 13개 및 장애인 체육대회 4개대회 등 신규대회 8개가 늘어난 총 46개대회 개최로 작년 대비 20%, 293,800만원을 증액한 시비 1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수시 도비지원 대회를 10개 내외로 추가 신청해 연중 스포츠행사로서의 활력을 되찾고 도내 최고의 스포츠 명품도시 발돋움이라는 단기목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월에는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

태권도승단대회와 열리고, 3월에는 전국탁구대회와 시장기 3구선당구대회 등이, 4월에는 국제대회인 남원코리아오픈 국제플러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배 남원자전거대회와 김주열열사추모배 자전거대회, 가을철 지리산그랑폰도대회 등 전국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최고 코스로 꼽는 지리산정령지와 섬진강을 배경으로 지역특화종목 육성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문제부장관

배 초등태권도대회와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가족 동반자 유입효과가 큰 유소년대회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단순 체육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체류형 대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양근 남원시 교육체육과장은 “올해는 공격적인 안목확대를 꾀하고 대회종류 후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에 역량을 대회로 선정, 내년부터는 내실화 단계로 진입하겠다”고 스포츠육성 전략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스포츠타운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주민 숙원 해소... 생활체육 활성화·대회 유치 도움 기대

고창군 스포츠타운(월암리 90-1번지)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개관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고창읍 월암리 90-1번지 일원(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2020년 7월에 착공해 총 70억원(국비 30, 군비 40)의 사업비를 투입해, 탁구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샤워실, 사무실 등 연면적 약 2,363㎡ 규모로 건립됐다.

군은 이곳 전용구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고, 다채로운 체육시설이 개관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은 물론,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으로 체육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관식을 계기로 체육시설 인프라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체육 복지 사각지역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 업체 공모... 27일까지

김제시는 27일까지 김제시민운동장 등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등의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공모한다.

제60회 전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대행사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이벤트행사대행업체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전북에 소재한 업체로 3년 이내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단일행사규모로 2억원 이상의 수주실적 등이 있다.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폐막식 연출 주관절과 프로그램 구성방향,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담긴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게시돼 있다.

정성주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개·폐막식 등의 공개 행사 입찰금액을 조정해 도내 지역제한 공고입찰로 공고했다면서 도내 공연기획사 및 방송사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60회 전북도민 체육대회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39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